

# 창조적 음악치료가 학습장애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심 해 숙                      박 정 미<sup>†</sup>

부산대학교

본 연구는 창조적 음악치료프로그램이 학습장애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력에 얼마나 효과를 주는가를 규명하려는 연구이다. 집단 안에서 집단원인 음악아동들은 음악적 즉흥연주, 노래만들기, 악기연주, 음악감상의 영역을 통해 창조적 음악치료프로그램 안에서 '인격의 사회화'를 경험하도록 했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적 연구로써 문헌조사와 경험적 연구의 실험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절차는 사전, 실험, 사후단계로 나누었다. 창조적 음악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집단과의 전, 후 비교설계를 사용하였으며, 평가는 자기효능감 검사와 학교생활적응 검사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종료시, 실험집단 및 관찰자들의 평가설문지와 녹취한 프로그램 등을 내용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학습장애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학습장애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학습장애 아동의 인지적인 특성으로써의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적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주요어 : 창조적 음악치료, 학습장애아동,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도

---

심혜숙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정미는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박 정 미, (609-39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 30,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전화 : 051-512-1494 E-mail : musicpjm@hanmail.net

최근에 음악치료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음악치료는 음악을 치료의 도구로 활용하여 환자의 자아실현을 조력하는 과정으로 음악과 심리 치료적 접근을 포함해서 환자의 증상을 제거 또는 수정하고 장애활동을 감소시키며 인격 장애인을 바람직한 성격을 갖춘 사람으로 이끄는 전문적 임상치료 형태를 말한다. 음악치료에서는 의사소통, 동일시, 연상, 자기표현 등의 심리적 효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음악에는 네 가지의 뚜렷한 경험의 종류가 있다. 즉흥, 재창조(또는 연주), 작곡, 감상이 그것이다. 이 음악경험의 종류는 각기 고유한 특성이 있고 각각은 고유한 참여 과정에 의해 정의된다. 각 형태는 서로 다른 감각운동 행동을 가지며, 각각은 서로 다른 지각적, 인지적 기술을 요구하며 서로 다른 감정을 유발한다. 음악을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은 기존의 곡을 연주하는 것과는 다른 잠재성과 적용을 가진다.

음악치료의 즉흥연주 모델로는 '창조적 음악치료 모델'과 '분석적 음악치료 모델'이 있다.

창조적 음악치료는 Paul Nordoff와 Clive Robbins (1983)가 발전시킨 것으로 인본주의 심리학의 원리에 근거한 음악이론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창조적 음악치료는 다른 음악치료와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창조적 음악치료는 수동적 접근이 아니라 능동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즉, 창조적 음악치료는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을 더 강조한다. 창조적 음악치료에서는 음악을 치료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치료 '로서' 사용한다. 둘째, 창조적 음악치료는 성장 동기 촉진뿐만 아니라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지배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셋째, 내담자는 비언어적이고 저 기능적일 수도 있고 언어적이고 기능적일 수도 있다. 창조적 음악치료의 사용은 어떤 특정한 연령이나 성장단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어질 수 있다(김군자, 1998).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행동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심사 및 선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학습장애 아동이란 학교교육, 그리고 지능에 비해 읽기, 산수, 쓰기에 있어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성취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오는 아동을 지칭하며, 부적응 행동과 학습상의 문제가 겹쳐서 일반교육방법으로는 지도가 곤란함으로 특별한 교육배치나 배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정의한다.

장애인의 치료에 있어 과거에는 장애의 원인을 찾는 것을 매우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학습 치료 전문가들 또한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는데, 이들에 의하면 아동의 학습 장애에는 신체적 조건, 환경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동기적·정의적 요인도 기여한다고 한다. 연구에 의하면, 한 아동이 어떤 이유로 학습에 실패하면, 성공기대가 줄고, 과제를 회피하게 되며, 자신감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태도는 학습동기를 감소시키고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낳는다고 한다(김정권, 한현민 1996). 학습장애 아동들은 또래보다 덜 호감을 받고 사회적 문제를 가질 위험이 더 크다는 사실 또한 여러 연구(Bryan & Bryan, 1986)에서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습장애 아동은 행동문제뿐만 아니라 정규학급의 요구에도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nder & Golden, 1988; Siperstein & Goding, 198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장애 아동들은 행동 문제뿐만 아니라 적응 문제도 동시에 갖는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Vaughn(1985)은 이에 대해 또래나 성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학습장애 아동에게 욕구좌절을 일으키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게 하고, 고독감

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분석에 비추어 보면 학습장애아동은 또래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낮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즉,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고자 할 때의 자기조절, 자기 관찰과 자기판단 그리고 자기 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의 기대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도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등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음악치료는 오랫동안 효과적인 치료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많은 연구 결과 또한 음악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창조적 음악치료는 수용적 접근방식 이라기보다는 능동적 접근방식이다. 다시 말해, 이 접근법은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보다는 음악을 만드는 활동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Nordoff & Robbins, 1965a, 1965b). 비록 음악 듣기가 임상적으로 유용할 수는 있겠으나 능동적인 음악 만들기는 아이의 관심을 유도하고 아이를 적극적인 참여와 직접적인 개입(commitment)으로 이끌어 내어 내적 경험을 외면화시키게 된다(Geuter & Herbert, 1962). 더구나 아이가 적극성을 유지하는 동안 음악은 계속 변화한다. 이러한 음악의 변화는 이제 아이의 감정적 경험을 움직이게 하고 그로인해 그 경험을 활용하고 변형시킬 수 있게 만든다(Nordoff & Robbins, 1965b).

치료사가 즉흥연주를 하는 일차적 목표는 내담자를 음악 만들기(music-making)에 참여시키는데 있다(Nordoff & Robbins, 1971). 사실 음악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이야말로 치료적 경험의 핵심이며 치료가 진행되는 것도 내담자와 치료사 공동(coactive)의 음악 만들기를 통해서이다(Nordoff

& Robbins, 1982).

Kohler(1929)에 의하면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게 되면 내재적 학습이 일어나며, 이 내재적 학습은 신체적 자아(physical self)를 통한 감각의 경험에서부터 상징적인 표현 형식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보고, 듣고, 느끼고, 접촉하는 경험들은 자신과 타인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키는 기초적인 능력이 된다. 따라서 모든 교육과정의 바탕은 기본적으로 경험을 인식하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내재적 학습은 바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안재신(1996)은 음악은 사람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줌으로써 무의식속에서 진실함과 아름다움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음악을 통해서 삶을 감성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된다고 하며, 창조적 음악치료에서 참여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악기를 실제로 다루는 것이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같은 정의적인 측면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Minskoff(1980a, 1980b)는 학습장애 아동이 갖는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느낌과 정서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연구하고 과제 분석했는데 이 연구에서 창조적인 음악치료프로그램이 비언어적 프로그램으로서의 학습장애아동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문제해결안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은 자체로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중요하지만 학습과정에서 각성 조절 요소, 단어의 전달 도구 및 두뇌를 자극하는 점화자극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유미, 2000b). 실제로 최근에 이루어진 음악과 학습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음악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Jensen, 1996; Lang, 1999; Rauscher et al., 1993; Weinberger, 1998a; 1998b). 또한 외국어 학습으로 널리 알려진 Lozanov(1978)의 암시 가속

교수학습법은 음악을 주요 요소로 활용하여 이완상태를 유도하고 두뇌 양반구를 활성화시키며 정보를 무의식과 의식에 전달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최대화 하려는 교수 학습법으로, 그 효과 또한 긍정적이다(Ostrander, Schroeder, & Ostrander, 1994).

음악은 또한 아동에게 청각적 자극을 처리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케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음성 질문에 대해 사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청각과 운동신경간의 조화라 할 그 같은 상황은 음악을 이용한 청각 변별 훈련(auditory discrimination training)을 통해 효율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더불어 현악기를 다루거나 긴 멜로디를 기억해 내거나 들리는 음의 높낮이를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운 아동은 최종에 가서는 청각적으로 아주 미세한 구별까지 해낼 수 있게 된다(Suzanne, 1999). 이처럼 교수-학습에서 풍요로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게임, 움직임, 미술, 음악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에서 음악 등을 활용하는 방법들은 인지, 정서 및 신체를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제시한 많은 연구들과도 일치하다.

그런가하면 Sylwester(1995)는 음악이 정서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두뇌의 일부 부분이 음악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음악이 중요하지 않다면 두뇌에 그런 부위가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음악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예체능 활동이 사고, 정서적 표현 및 기억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두뇌생리학적 근거가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Jensen, 2001).

Johnson(1940)은 심한 정신지체아동에게 특정 낱말을 가르치려고 노래에 나오는 낱말을 느리고 과장되게 발음함으로써 학습을 강화할 수 있

었다. 단순어휘 기억률의 감퇴보다 멜로디에 담긴 어휘 기억률의 감퇴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은 멜로디 언어기억이 쉽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음조나 멜로디가 청각적 변별기능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Harrison & Lecronc, 1966; 이상복, 이상훈, 1998, 재인용).

1975년도에 제정된 전 장애아 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즉, 공법(Public Law) 94-142 덕택에 미국의 아동들은 제한이 최소로 가해지는 환경에서 무료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해당 법률은 현재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데, 음악치료는 관련된 서비스 프로그램 안(安)의 하나이자 아동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서(Individualized Education Plan(IEP)에 명시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상기의 선행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창조적 음악치료는 장애아동의 정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특성을 다루는 데에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는 주로 정의적인 특성에만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제한점이 있다.

창조적 음악치료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의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창조적 음악치료가 이들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창조적 음악치료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창조적 음악치료가 자기 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연구문제와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창조적 음악치료가 학습장애 아동

의 자기효능감에 효과를 주는가?

가설 1-1 :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아동은 통제집단 아동보다 자신감이 증가 할 것이다.

가설 1-2 :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아동은 통제집단 아동보다 자기효능 조절감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3 :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아동은 통제집단 아동보다 과제 난이도 수행력이 증가 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창조적 음악치료가 학습장애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도에 효과를 주는가?

가설2-1 :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아동은 통제집단 아동보다 교사와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가설2-2 :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아동은 통제집단 아동보다 교우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가설2-3 :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아동은 통제집단 아동보다 학교 수업태도가 개선될 것이다.

가설2-4 :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아동은 통제집단 아동보다 학교 규칙 준수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994년에 개정된 특수교육법을 근거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내에 학습장애

아동으로 진단 받아 배치된 아동으로 한정하며, 그 중에서도 KIT-P 초등학교용 지능검사(한국행동과학연구소)결과 지능지수가 80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함을 의미하며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학습장애아동으로 진단 평가된 22명을 선별하였다.

대상 아동 중 연구자와 특수교육관련 전문가와 함께 실시한 학습준비도와 기초학습 기능검사를 통하여 특수교육관련 전문가의 장애판별검증을 거쳐 실험집단 11명, 통제집단 11명을 편성하였다.

연구설계

본 연구는 창조적 음악치료가 학습장애 아동들의 자기효능감 발달과 학교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사례연구를 포함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설계모형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고자 할 때의 자기조절, 즉 자기 관찰과 자기 판단 그리고 자기 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를 의미한다(김아영, 차정은, 1996).

연구자는 김아영과 차정은(1996)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특수교육관련 전문가에 의뢰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척도를 초등학교(4~6학년) 학생 90명을 표집하여 예비조사한 후에 문항내적 합치도를 산출해 본 결과 신뢰도계수가 .756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771~.856로 나타났다.

표 1.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내용

진행 단계	회 기	주 제	활 동 내 용	준 비 물	측정 도구
준비 단계	1	음악치료란 무엇인가?	· 창조적 음악치료프로그램 소개 · 집단원들과의 인사나누기	자연스러운 음악실 환경, 이름표, video, 각종타악기, 각종CD, 오디오	· 자기효능감 검사 · 학교생활 적응검사
	2	모방을 통한 노래부르기	· 집단원의 노래부르기(이중창) · 감상영역 · 개사된 곡으로 리듬을 익힌다.	필기도구, 이름표, video, 각종 타악기, 각종CD, 오디오	
전개 단계	3	Songwriting	· 가족, 친구, 자신의 소중한 노래로 표현하기 · 주변 자연의 상황을 노래로 만들. · 박자, 리듬을 익힌다.	필기도구, 이름표, video, 각종 타악기, 각종CD, 오디오	
	4	Songwriting	· 박수치기, 발구르기, 춤추기 무릎 구부리기등 신체표현으로 작사하기	필기도구, 이름표, video, 각종 타악기, 각종CD, 오디오	
	5	Songwriting	· 형식을 정하여 다함께 노래해본다. · 가사와 동작에 대하여 느낀 점을 이야기하기 ·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악보, 필기도구, 이름표, video, 각종타악기, 각종CD, 오디오	
	6	창조적 음악 활동(I)	· 음악적반응-movement · 음악에 맞춰 춤춰보기 · 기본리듬 만들어보기 · '음악아동'을 익힌다.	악보, 필기도구, 이름표, video, 각종타악기, 각종CD, 오디오, 리듬악기	
	7	창조적 음악 활동(II)	· 음악적반응-movement · 리듬악기를 통한 자연의 즉흥연주 표현하기 · '음악아동'을 익힌다.	악보, 필기도구, 이름표, video, 각종타악기, 각종CD, 오디오, 리듬악기	
	8	창조적 음악 활동(III)	· 음악적 반응-movement · 즉흥리듬으로 자신의 현재 감정을 표현하기 · '음악아동'을 익힌다.	악보, 필기도구, 이름표, video, 각종타악기, 각종CD, 오디오, 리듬악기	
	9	창조적 음악 활동(IV)	· 음악적반응-movement · 노래와 악기와 춤을 동시에 표현하기 · '음악아동'을 익힌다.	악보, 필기도구, 이름표, video, 각종타악기, 각종CD, 오디오, 리듬악기	
	10	창조적 음악 활동(V)	· 음악적반응-movement · 집단원 다함께 연주하기 · '음악아동'을 익힌다.	악보, 필기도구, 이름표, video, 각종타악기, 각종CD, 오디오, 리듬악기	
	11	Songwriting	· 음악적반응-movement · Music video 감상하며 전체느낌 나누기 · '음악아동'을 익힌다.	악보, 필기도구, 이름표, video, 각종타악기, 각종CD, 오디오, 리듬악기	
	결말 단계	12	Songwriting	· 자신들의 음악활동 모습을 감상하며 전체느낌 나누기(평가,소감)	악보, 필기도구, 이름표, video, 각종타악기, 각종CD, 오디오, 리듬악기

### 학교생활적응 검사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한 척도로서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등에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가를 측정한다(유윤희, 1994).

본 연구에서는 유상철(1982)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검사지'와 임정순(1993)의 '학교생활적응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김현자(1999)가 초등학교에 알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활용될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창조적 음악요법(Nordoff & Robbins, 1992), 음악치료 즉흥모델(김군자, 1998)과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음악치료 강사 박정미(1999)의 음악치료 적용프로그램모델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의 특수초등 음악치료 슈퍼바이저로서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예비프로그램 실시 후 연구의 목적과 기간에 맞게 재구성하여 실험집단의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기간을 40분씩 총 1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학습장애 아동의 자기 효능감과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따른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은 실험-통제집단간의 사전-사후검사를 순위합 검증의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고 실험, 통제집단별 사전-사후에 Wilcoxon의 부호화된 순위검증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검증에 따른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음악치료사, 특수교육관련 전문가 각 3명의 관찰자로서 프로그램 실시 전,

후의 기간동안의 관찰을 토대로 한 '음악치료 집단 관찰 서식', '특수교육 종합 평가 설문지'로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실험 집단 참가자들에게도 '설문지평가'와 녹취한 '소감문'을 토대로 질적인 분석을 하였다.

## 결 과

### 통계적 분석 결과

####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전검사에서는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감, 과제난이도에서 실험-통제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사에서는 하위요인 중에 자신감, 자기조절감에서 실험-통제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U=27.000$ ,  $N$  실험=11,  $N$ 통제=11,  $p=.028$ , 일방향). 그러나 사후 과제 난이도에서는 실험-통제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 처치의 효과를 보다 효율적이고 올바른 분석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표 3, 표 4에서 실험, 통제집단별 사전-사후검사의 부호화된 순위검증을 실시하였다(Wilcoxon 검증).

표 3에서 보듯이 하위요인 중에 자신감, 자기조절감, 과제난이도에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사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듯이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비교 부호화된 순위검증에서는 하위요인 중에 자신감, 자기조절감, 과제난이도에서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검사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전, 사후 검사에서 실험-통제 집단간의 비교(Mann-Whitney 검증)

구분	하위요인	집단	N	평균순위	순위합	U
사 전	자신감	실험	11	12.95	142.50	44.500
		통제	11	10.05	110.50	
	자기조절감	실험	11	9.05	99.50	33.500
		통제	11	13.95	153.50	
	과제난이도	실험	11	9.64	106.00	40.000
		통제	11	13.36	147.00	
총합	실험	11	9.00	99.00	33.000	
	통제	11	14.00	154.00		
사 후	자신감	실험	11	7.77	85.50	19.500**
		통제	11	15.23	167.50	
	자기조절감	실험	11	14.55	160.00	27.000*
		통제	11	8.45	93.00	
	과제난이도	실험	11	13.77	151.50	35.500
		통제	11	9.23	101.50	
총합	실험	11	13.82	152.00	35.000	
	통제	11	9.18	101.00		

\* $p < .05$  \*\* $p < .01$

표 3.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비교(Wilcoxon 검증)

사후-사전	순위형태	N	평균순위	순위합	Z
사후자신감 - 사전자신감	음의순위	11	6.00	66.00	2.940**
	양의순위	0	.00	.00	
	동률	0			
사후자기조절감 - 사전자기조절감	음의순위	0	.00	.00	2.805**
	양의순위	10	5.50	55.00	
	동률	1			
사후과제난이도 - 사전과제난이도	음의순위	1	3.00	3.00	2.675**
	양의순위	10	6.30	63.00	
	동률	0			
사후총합 - 사전총합	음의순위	2	3.50	7.00	2.315*
	양의순위	9	6.56	59.00	
	동률	0			

\* $p < .05$  \*\* $p < .01$



표 4.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비교(Wilcoxon 검증)

사후-사전	순위형태	N	평균순위	순위합	Z
사후자신감 - 사전자신감	음의순위	7	4.57	32.00	.460
	양의순위	3	7.67	23.00	
	동률	1			
사후자기조절감 - 사전자기조절감	음의순위	4	3.88	15.50	.351
	양의순위	4	5.13	20.50	
	동률	3			
사후과제난이도 - 사전과제난이도	음의순위	4	4.00	16.00	.351
	양의순위	3	4.00	12.00	
	동률	4			
사후총합 - 사전총합	음의순위	4	6.88	27.50	.493
	양의순위	7	5.50	38.50	
	동률	0			

표 5. 사전, 사후 검사에서 실험-통제 집단간의 비교(Mann-Whitney 검증)

구분	하위요인	집단	N	평균순위	순위합	U	
사전	교사관계	실험	11	11.50	126.50	60.500	
		통제	11	11.50	126.50		
	교우관계	실험	11	8.23	90.50	24.500*	
		통제	11	14.77	162.50		
	학교수업	실험	11	9.36	103.00	37.000	
		통제	11	13.64	150.00		
	학교규칙	실험	11	10.59	116.50	50.500	
		통제	11	12.41	136.50		
	총합	실험	11	9.50	104.50	38.500	
		통제	11	13.50	148.50		
	사후	교사관계	실험	11	16.45	181.00	6.000**
			통제	11	6.55	72.00	
교우관계		실험	11	15.32	168.50	18.500**	
		통제	11	7.68	84.50		
학교수업		실험	11	15.86	174.50	12.500**	
		통제	11	7.14	78.50		
학교규칙		실험	11	16.73	184.00	3.000**	
		통제	11	6.27	69.00		
총합		실험	11	16.50	181.50	5.500**	
		통제	11	6.50	71.50		

\* $p < .05$  \*\* $p < .01$

이러한 결과는 연구문제 1. 「창조적 음악치료는 학습장애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효과를 주는가?」에 따른 가설 1-1~1-3의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 처치를 받은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자기효능감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이 수용되었다. 한편 창조적 음악치료프로그램은 학습장애 아동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의 증가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요인중에 자기효능조절감, 과제난이도 수행력 증가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프로그램이 학교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효과**

표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전검사에서는 하위요인 중에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에서 실험-통제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후검사에서는 하위요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에서는 실험-통제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 처치의 효과를 보다 효율적이고 올바른 분석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통제집단별 사전-사후검사 부호화된 순위검증을 실시하였다(Wilcoxon 검증).

표 6에서 보듯이 하위 요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에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7에서 보듯이 하위 요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에서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학교수업에서는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

표 6.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비교(Wilcoxon 검증)

사후-사전	순위	N	평균순위	순위합	Z
사후교사관계 - 사전교사관계	음의순위	0	.00	.00	2.670**
	양의순위	9	5.00	45.00	
	동률	2			
사후교우관계 - 사전교우관계	음의순위	0	.00	.00	2.943**
	양의순위	11	6.00	66.00	
	동률	0			
사후학교수업 - 사전학교수업	음의순위	0	.00	.00	2.946**
	양의순위	11	6.00	66.00	
	동률	0			
사후학교규칙 - 사전학교규칙	음의순위	0	.00	.00	2.937**
	양의순위	11	6.00	66.00	
	동률	0			
사후총합 - 사전총합	음의순위	0	.00	.00	2.934**
	양의순위	11	6.00	66.00	
	동률	0			

\*\*p<.01

표 7.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비교(Wilcoxon 검증)

사후-사전	순위형태	N	평균순위	순위합	Z
사후교사관계 - 사전교사관계	음의순위	5	5.10	25.50	.359
	양의순위	4	4.88	19.50	
	동률	2			
사후교우관계 - 사전교우관계	음의순위	5	7.50	37.50	1.044
	양의순위	5	3.50	17.50	
	동률	1			
사후학교수업 - 사전학교수업	음의순위	1	2.50	2.50	2.209*
	양의순위	7	4.79	33.50	
	동률	3			
사후학교규칙 - 사전학교규칙	음의순위	3	3.00	9.00	.879
	양의순위	4	4.75	19.00	
	동률	4			
사후총합 - 사전총합	음의순위	5	5.60	28.00	.446
	양의순위	6	6.33	38.00	
	동률	0			

\* $p < .05$

과는 연구문제 2. 「창조적 음악치료는 학습장애 에 따른 가설 2-1~2-4의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에 효과를 주는가?」 그램 처치를 받은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

표 8. 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설문문항 분석 결과(N=11)

문항번호 및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해 증진	0(0%)	0(0%)	2(18%)	7(63%)	2(18%)
2. 자기 자신감의 향상에 대한 인지	0(0%)	0(0%)	1(9%)	5(46%)	5(46%)
3. 자신의 자기조절감 향상에 대한 인지	0(0%)	0(0%)	2(18%)	6(55%)	3(27%)
4. 과제난이도 향상에 대한 인지	0(0%)	0(0%)	3(27%)	5(46%)	3(27%)
5. 여러형태의 음악치료프로그램 효과지각	0(0%)	0(0%)	1(9%)	3(27%)	7(64%)
6.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타인의 인식 변화	0(0%)	0(0%)	0(0%)	5(46%)	6(55%)
7. 학습습관과 학습태도 개선	0(0%)	0(0%)	0(0%)	5(46%)	6(55%)
8. 집단원들과의 친밀성 향상	0(0%)	0(0%)	0(0%)	3(27%)	8(73%)
9.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인지	0(0%)	0(0%)	0(0%)	7(64%)	4(36%)
10. 음악치료사와의 친밀성 향상	0(0%)	0(0%)	0(0%)	2(18%)	9(82%)

여 학교생활 적응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수용되었으며 창조적 음악치료프로그램은 학습장애 아동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적용에 효과적인 음악적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설문 문항 분석

표 10에 의하면 11명의 참여자 모두가 창조적 음악프로그램이 '아주 혹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

는 것 같다' 라고 나타났다. 아동들 또한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창조적 음악치료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된 나머지 9문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고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에게 타인과의 긍정적인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바람직한 변화반응이라고 할 것이다.

프로그램 행동·태도변화 및 소감 녹취 분석

표 9.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 행동·태도 변화 관찰 및 소감

별칭	회기전	첫째·둘째 (4회 회기)	셋째·넷째 (4회 회기)	다섯째·여섯째 (4회 회기)	소감문
선물 상자 (남,11)	· 쉬운 글자 읽기가 가능 · 우둔하거나 공격적인 성격임	· 첫 날 기회 있음 · C과 장난치는 성향 잦음. · T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활동하나 부끄러워하는 성향 많음.	· T와의 활동에 유심한 관찰을 가지고는 있지만 손을 들고 발표를 시킬 때는 꺼리는 경향	· 대체적으로 잘 따라함 · 한번씩 T의 행동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며 슬쩍 다가와 보고하기도 함 · 고개를 밑으로 숙이는 행동 있으나 그 행동으로 T의 모습을 슬쩍 봄	· 재미있어요. 리듬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내가 선물상자라면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음악치료 수업 다음에 또 하면 좋겠어요. 다음에 안오시나요....
새 (남,11)	· 부끄러움을 많이 탐	· T의 말에 귀 기울이고 활동을 함. · 부끄러워하는 행동 있지만 앉아서 하는 활동에 보고 따라함	· 발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함. · 사물이름 명명의 경우 잘 하나 motion을 만드는 행동에서 많이 약함(자신이 뭔가를 표현해야 할 때 멋쩍어 하며 부끄러워하고 만들지 못함) · 박자개념에 대해서 대체로 적극적	· 아는 것은 많으나 발표 시 몸을 기대어 흐느적거리는 모습 여전히 남아 있음(특히 자신의 얘기가 자기표현해야 하는 motion 일 경우) · 대체적으로 집중하여 잘 따라 하나 그룹 속에 묻혀 있는 경향이 많다	· 재미있어요. 신나요. 리듬치는거 좋아요. 과자를 많이 먹고 싶어요. 내가 만약 새라면 구름속에서 누워 낮잠을 자고 싶어요. 음악시간 좋아요....

표 9. 계속

별칭	회기전	첫째·둘째 (4회 회기)	셋째·넷째 (4회 회기)	다섯째·여섯째 (4회 회기)	소감문
풍선 (여,11)	· 말을 잘 하지 않고 표현력이 부족하며 집단에 잘 어울리지 못함. 기초학력이 떨어져지고 학습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	· 옆 C들에게 장난을 많이 쳤음 (2-3회 섹션 결석)	· '뭘까? 뭘까? 맞춰봅시다' 노래를 부르며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몸 동작 표현이 아주 적극적임 · 과제를 수행하다가 뒤로 돌아서서 연필 깎는 행동 있고 자리가동이 잦음. · 박자개념을 익힐 때 이기고 짐에 대한 흥분이 많음(두툼으로 나누어서 할때 자기팀이 약할때 괴성을 지르기도 함).	·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는 반면 한번씩 산만해 지고 장난도 치는 행동 있음. · 자신의 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아 타C가 대기만 해도 신경질적인 모습 많음(특히 오빠).	· 잘 생각이 안나지만 반에서는 아이들이 때려서 기분이 나빴지만 음악치료 수업은 기분이 좋아요. 내가 풍선이라면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노래하는 것이 좋아요. 딸랑이 가지고 리듬치는거 좋아요. 음악시간이 제일 좋아요. 음악치료 수업하면 계속 하면 좋겠어요....
기차·새 (남,13)	· 압전하고 말이 없으며 자기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음. 기초 학습 부족함.	· 자리를 뒤로 빼고 앉아 있음 · 섹션에 대한 관심 없고 자리 이동이 잦음. · 엉뚱한 소리 자기의 별칭(고기센)을 괜히 말하면서 행동. (2회 섹션 결석)	· 그룹에서 벗어나 뒤에 나가 앉아 있다가 T의 '들어와'라는 말에 그룹속에 앉음. · 의자에 가만히 앉아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손을 들지도 않고 힘이 빠져있는 행동 - 시간이 조금 흐른 후 관심 가지고 손을 들기도 함(그림 그리고 발표 시- '선생님 해요'라고 자신이 먼저 하고픈 말로 진행을 만들어 줌) · 박자개념을 익힐 때 악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혼자서 T가 보여준 개념지도 표를 보고 익히고 같이 악기 놀이시 즐거워 함	· 다른 특이한 행동 없이 모든 섹션에 동참하며 먼저 하려고도 하고 순서를 기다려서 하는 것 등 많이 호전된 모습 · 음악을 듣고 느낀 것을 그럴 때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로 옮기는 모습. · 자신감 부분에서 많이 결여되는 부분이 많았음 (자신의 의견 수립에 있어서)	· 기분이 좋아요. 즐거워요. 내가 만약 새라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노래부르기, 박자치기 다 좋아요. 또 하고 싶어요...

표 9. 계속

별칭	회기전	첫째 · 둘째 (4회 회기)	셋째 · 넷째 (4회 회기)	다섯째 · 여섯째 (4회 회기)	소감문
토끼 (여,12)	명랑하고 순수하나 잘 들을수 없어 불편 을 느낌. 문장이 해 력이 부족 하다.	· 행동이 많이 느림 집중을 하는 듯 하 다가 옆에 있는 송 이와 이야기하고 또 한 태용이의 장난 에 끼어 들어 산만 의 행동이 오래감	(8-9회 결석) · 일어서서 손을 들 정도로 과제수행에 대 한 관심이 많이 높아 짐	· 간단한 과제에 대해 선 관심도 높고 하려 는 의욕이 많으나 마 지막 섹션시 '내가 만 약 ~~라면'에서 모두 다른 것을 주니 많이 불안해 함.(보고 빼길 수 없음에 대해) · 새로운 과제에 대한 불안감이 많음. T가 다가가 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니 좀 안심)	· 기분이 좋아요. 생각 은 많이 만나지만 그 냥 음악이 좋아요. 그 리고 재미있어요. 음악 수업 또 하고 싶어요. 노래하는 것이 좋아요. 음악시간이 제일 좋아 요. 내가 토끼라면 동 물 친구들과 함께 놀 았으면 좋겠어요....
천사 · 선물 (여,12)	· 자기 의 의사를 잘 표현 하지 않음. · 문장의 이해과 기 초 계산 능 력이 부족 함.	옆에 앉은 동생(태 용)이 귀찮게 하는 행동 많음으로 집 중도가 많이 떨어 짐. 모두들 활동할 때 작은 motion으로 하고 옆의 태용이 를 관찰함이 많음	비교적 집중은 하나 적극적인 행동이나 motion은 하지 않음. 음악 듣고 활동 할 때 열심히 혼자서 뭔 가를 하고자하나 뜻 대로 되지 않는 듯 계속 그리고 지우는 형태가 많음. 박자개념 익힐 때 T 의 칭찬을 한번 해 주었을 때 적극적 행 동으로	· 다리를 만지다가 T 와 눈이 마주치니 슬 쩍 내리는 모습. · 머리를 숙이고 의기 소침해진 모습도 보임 · 박자개념과 리듬악 기 맞추기에서 손을 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발표. · '내가 만약 ~~라면' 에서 그림으로 그리기 는 어려우나 사랑에 끓주림이 표현됨	· 좋아요. 천사가 되어 천국에 가고 싶어요.음 악이 좋아요. 계속 하 면 좋겠어요. 내가 만 일 선물이라면 부모님 께 선물과 편지 보여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께 칭찬을 받고 싶어요. 노래부르 는 것 좋아요....

표 9. 계속

별칭	회기전	첫째 · 둘째 (4회 회기)	셋째 · 넷째 (4회 회기)	다섯째 · 여섯째 (4회 회기)	소감문
나비 (남,11)	· 글을 잘 읽지 않으려고함. · 수업시간에 잘 돌아다니고 집중력 없음	손을 턱에 대고 몸을 누나에게 기댄 채 비빔. 집중하지 않고 양옆에 앉은 채문, 송이에게 장난을 먼저 한다. 계속 옆드리는 행동으로 채문 옆에 재운이에게까지 접적이는 행동	여전히 많이 산만(T의 옆으로 자리 바꿈) -> 여전히 맘대로 자리 이동 잦음. T에 대한 불만으로 악기놀이시 뒤로 기대어 다른 물건들 만지작거리는 행동 많음. 음악 듣고 발표시 발표는 먼저 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발표 후 여전히 자리 이동 많음	· 자리를 여전히 맘대로 이동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깨는 행동 포함	· 좋아요. 재미있구요. 음악이 좋아요. 나비가 되어 음악과 함께 춤추고 싶어요. 음악수업도 하고 싶어요. 노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의자 (남,11)	읽기가능. 손장난이 심함.	T와의 활동을 많이 어색해 함. 목소리도 작게 표현. 의자 뒤로 기대어 들썩 들썩 거리는 행동. 양옆의 C으로 인해 장난을 같이 하기도 함	대체적으로 T를 보고 따라는 하지만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부분에서는 잘 따라하지 않음 옆에 앉은 태용이와 장난을 치며 작은 motion으로 악기를 만지며 침	· 태용이의 장난에 많이 흔들리지 않고 대체적으로 T와의 활동에 잘 따라하며 집중하여 색션을 마무리한다	· 춤추는 토끼가 춤을 추어 너무 아름다워요. 악마세계에도 가고 싶어요. 정말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또 더 하고 싶어요. 내가 의자라면 축구선수가 너무 힘들지 않게 의자에 앉게 하고 싶어요. 박수치는 거 제일 재미있어요....
주전자 (남,11)	· 무슨 일이나 나서려고 하고 과잉행동을 많이 함. 기초능력 부족함.	· 장난이 많이 심함. · 채문이와 장난을 치고 집중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음. · 대체로 채문에게 먼저 장난을 걸어 채문이가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이 많음	(8-9회 결석) · 옆의 C과 장난침의 행동 많으나 활동에서 관심의 집중도가 많이 높아짐. · 발표시 많이 꺼려하고 힘들어 하다가 자신있게 발표하며 먼저 하려고도 함. · 자신감 있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가 많이 좋아하는 듯함.	· 태용이가 점점 땀으로 인해 계속 태용이에게 손을 대는 행동. · 활동을 즐기면서 함 (혼자서 리듬을 맞추듯 몸을 흔들) · 대체적으로 산만함은 있었으나 활동모두에 참여하고 그 활동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모습 있었음	· 내가 주전자라면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싶어요. 음악치료수업 재미있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미키마우스가 지휘하는 것이고요 음악만화에 팬이버섯들이 춤추고 돌아다니니까 기분이 좋아요. 음악치료수업도 하면 좋겠어요. 다음 음악 수업에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노래부르기 예요...

표 9. 계속

별칭	회기전	첫째·둘째 (4회 회기)	셋째·넷째 (4회 회기)	다섯째·여섯째 (4회 회기)	소감문
풍선 (여,11)	기 초 학 력 이 떨어짐. 말을 잘하 지 않고 표현 력 이 부족 하며 집단에 잘 어 울 리 지 못함	·T와의 활동에 상 호작용. ·열심히 관심가지 기 위한 행동 많음 ·T의 여유시간에 도 T의 활동에 많 은 관심. ·집중이 있고 표현을 활발 하게 하고 자신감 이 있음.	·발표에 대한 적극 성 많음. ·타C이 하는 것에 대한 질투심 또한 많 음. ·가끔씩 의자를 앞/ 뒤로 왔다 갔다 하는 행동. 자신에게 관심 이 없으면 관심 보이 려고 엉뚱한 말(ex: 선 생님 화장실 갔다 올 게요)을 하고 의자를 뒤로 빼서 먼곳에 앉 는 행동	·집중해서 잘 따라는 하지만 활동과 관계 없는 말을 많이 함 ·발표 시 T가 먼저 하게 할땐 안한다고 하고 타C을 먼저 시키 면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타C보다 돋보 이려는 행동 많음. ·관심 받으려는 행동 을 자주 함	·꽃밭에서 생각하면 짹짹 음악소리 같아 요. 노래하는 것이 좋 아요. 음악치료수업 계 속 했으면 좋겠어요...
로봇트 (남,11)	·다소 산 만한 편임. 전 반 적 으 로 기초학 력이 떨어 짐.	(2-3회색선결석) ·T가 손 내밀어 손잡기를 할때 많 이 꺼려함. ·동생 정윤이를 많이 괴롭힘(말로) 활동에서 눈치보며 T와 C의 motion을 따라 하지만 한박 자씩 뒤 늦게 하는 행동 많음	·한번 T와 관계가 끊어져서 T가 끝까지 다가가서 행동에 대 한 부정적강화를 주 었으므로 그 일로 인 해 많이 T와 가까워 짐. ·활동시 적극적인 자세로 듣고 발표도 함. ·T가 하는 우스 광스러운 행동에 썰 많이 웃기도함. 음악 듣고 그림, 글로 표현 시 뭔가를 열심히 그 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함. ·악기놀이시 관심 적음. 자리아동 찾음	·T가 잘함에 대한 행 동 강화를 할때 많이 좋아 함. ·적극적인 관찰 태도 가 많이 생김. ·좀 산만한 모습을 가지기도 하지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은 계속 가짐.	·즐거웠어요. 미키마 우스가 제일 기억나구 요. 꽃이 춤추는거 보 니깐 기분이 좋아요. 노래하는 것이 제일 좋구요. 아무거나 음악 은 다 좋아요. 비눗방 을 타고 로봇트 나라 에 가고 싶어요.



**관찰자용 종합평가 설문지 분석**

표 10에 의하면 3명의 관찰자들의 집단관찰의 결과는 매우 일치성이 높으며 관찰과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반응들은 참여자들이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생활 적응 전체가 증진되었음을 보여주며, 아동이 음악치료사에게 보여주는 친밀성 정도가 타인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에게 창조적 음악치료의 필요성 또한 현 교육 체제 내에 필요한 교육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음악치료 집단관찰을 위한 표본 서식분석**

표 11에 의하면, 3명의 보조음악치료사들의 집단관찰의 결과는 매우 일치성이 높으며 관찰과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음악치료사에 대한 관심도'(67%), '지시 준수 여부'(61%), '과제에 대한 관심도'(58%)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음악적 활동의 향유정

도'(52%)와 '언어적 능력의 발휘'(49%), '다른 치료 대상자와의 상호작용'(42%) 또한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한 바람직한 변화반응이라고 할 것이다.

**논 의**

우선,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창조적 음악치료는 학습장애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효과를 주는가?」에 따른 가설 1-2에 대한 '실험집단 아동들이 자기효능 조절감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1-3에 대한 '실험집단 아동들이 과제 난이도 수행력이 증가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통제적 분석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Bandura(1986)는 자신의 성취에 따른 직접적인

표 10.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관찰자용 종합 설문지

문항번호 및 내용	전혀	약간	그저	약간	아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1. 아동이 교사와의 관계이해 증진됨	0(0%)	0(0%)	2(6.1%)	15(45.5%)	16(48%)
2. 아동이 교우와의 관계이해 증진됨	0(0%)	0(0%)	11(33.3%)	18(54.5%)	4(12.1%)
3. 아동이 학교수업태도 증진됨	0(0%)	1(3%)	11(33.3%)	15(45.5%)	6(18.2%)
4. 아동이 학교규칙준수 증진됨	0(0%)	0(0%)	9(27.3%)	18(54.5%)	6(18.2%)
5.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 전체 증진됨	0(0%)	0(0%)	9(27.3%)	21(63.6%)	3(9.1%)
6. 아동이 음악치료사와의 친밀성 향상	0(0%)	0(0%)	2(6.1%)	11(33.3%)	20(60.6%)
7. 아동이 자기효능감 이해 증진	0(0%)	2(6.1%)	14(42.1%)	12(36.4%)	5(15.2%)
8. 아동이 자신감 향상됨	0(0%)	1(3%)	11(33.3%)	10(30.3%)	11(33.3%)
9. 아동이 자기효능감 향상됨	0(0%)	4(12.1%)	10(30.3%)	17(51.5%)	2(6.1%)
10. 아동이 과제난이도가 향상됨	3(9.1%)	2(6.1%)	11(33.3%)	11(33.3%)	6(18.2%)
11. 아동에게 음악치료의 필요성	0(0%)	0(0%)	0(0%)	13(39.4%)	20(60.6%)

표 11. 음악치료사의 집단관찰을 위한 표본서식

문항번호 및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참여도	0(0%)	3(9.1%)	10(30.3%)	11(33.3%)	9(27.3%)
2. 음악적 활동의 향유정도	0(0%)	1(3%)	8(24.2%)	17(51.5%)	7(21.2%)
3. 적절한 행동	0(0%)	3(9.1%)	11(33.3%)	13(39.4%)	6(18.2%)
4. 부적절한 행동	0(0%)	4(12.1%)	13(39.4%)	13(39.4%)	3(9.1%)
5. 지시 준수 여부	0(0%)	3(9.1%)	7(21.2%)	20(60.6%)	3(9.1%)
6. 음악치료사에 대한 관심도	0(0%)	0(0%)	4(12.1%)	22(66.7%)	7(21.2%)
7. 과제에 대한 관심도	0(0%)	2(6.1%)	8(24.2%)	19(57.6%)	4(12.1%)
8. 다른 치료 대상자와의 상호작용	0(0%)	6(18.2%)	14(42.4%)	13(39.4%)	0(0%)
9. 소근육의 협응도	0(0%)	2(6.1%)	14(42.4%)	14(42.4%)	3(9.1%)
10. 대근육의 협응도	0(0%)	4(12.1%)	11(33.3%)	12(36.4%)	6(18.2%)
11. 언어적 능력의 발휘	0(0%)	0(0%)	9(27.3%)	16(48.5%)	8(24.2%)

성공경험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창조적인 음악치료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무엇에 음악을 일치시키는 동질의 원리에 따라 음악을 선정하는 것으로 참가자 간의 첫 공감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가설 1-1에 대한 '실험집단 아동들이 자신감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설에 통계적 분석이 수용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Lathom(1983)은 음악적 활동을 통해서 다섯 가지의 음악 외적인 행동들 -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기능, 정서적 기능, 학습능력, 운동기능, 사회적 행동 - 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 시기에 맞지 않게 생기는 실패경험은 동기유발을 저해하고 부정적인 학습태도를 갖게 하기도 하므로 시기에 맞는 과제를 선택하

는 것이 중요하다(전병은, 1987)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양적 통계에서 자신감이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적 내용 분석에서 참가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문 및 평가 설문지와 관찰자 종합 평가 설문지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uzanne(1999)의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이 음악적 기술을 습득할 경우 그것은 인식, 운동신경, 지각 등의 영역에서도 음악 학습이 갖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의 자기 가치감의 상승의 효과를 가져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계적, 내용분석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 것은 학습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과제를 적용시킬 수 있는 일반화 전략의 개발(Gelzheiser, Shepherd, & Wozniak, 1986)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질적인 평가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있어야 된다고 본다.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전체적인 자기효능감은 증가하였기에 창조적 음악치료가 학습장애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에 따른 가설 2-1~2-4의 결과는 프로그램의 처치이후 학교생활적응 각 하위요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 수업태도, 학교 규칙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내용분석을 토대로 본다면 실험집단원의 평가 설문지 ‘학습습관과 학습태도 개선’ 문항과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인지’ 문항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고 관찰자용 평가 설문지에서도 ‘아동이 교사와의 이해관계 증진됨’ 문항, ‘아동이 학교수업태도 증진됨’ 문항, ‘아동이 학교생활 전체 증진됨’ 문항에 매우 향상적인 결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질적 분석 할 수 있었다. Beuscia(1989)는 음악치료는 치료사가 내담자를 도와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음악적 경험과 음악적 요소와의 관계들을 통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치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음악 치료를 받은 집단원들의 집단역동의 효과에 효과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결론을 두고 내용적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활동을 포함한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집단원의 음악아동들이 직접 음악을 만들어 감으로 해서 아동의 관심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직접적인 개입으로 내적 경험이 변화하여 아동의 감정적 경험이 움직여 그 경험이 활용되고 변형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과 경험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

용도 증가될 뿐 아니라 집단구성원들간의 친밀성과 음악치료사의 친밀성이 향상됨을 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인격의 사회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음악치료는 ‘음악’이라는 도구(감상 및 음악행위)를 사용해서 내담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행동의 변화에는 자신감, 사회성, 대인관계능력, 운동력, 학습능력 정서적 발달들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들이 포함된다. 이는 최병철(1994)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창조적인 즉흥 연주를 할 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마음대로의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는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 안에서 직접 음악 활동으로서 해결해야 한다. 창조적 음악치료는 아동의 특유한 잠재력과 희망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별화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창조적 프로그램은 아동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게 됨으로써 감정조절과 자기 욕구와 요구의 자기정화가 되었다고 하겠다.

Perls(1974)가 주장하는 음악치료는 현대 인본주의 심리학에 뿌리를 둔 접근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해 주고, 각 개인마다 독특한 잠재력이 있다는 보고의 내용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음악활동 과제에 대한 흥미를 주어 활동에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주의 집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여러 다양한 직접적인 음악적 자극을 통하여 아동들은 비록 성취감이 낮을지라도 자신감을 줄 수 있고 성격 발달에 도움을 주며 자기존중을 하도록 한다. 스스로의 평가를 통해 성숙한 태도로서 자기 인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음악행위에 수반에 책임과 질서는 아동들이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행동

학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자기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프로그램 안에서의 참여와 동기를 유발시키고 유대감을 갖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아동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학습장애 아동으로서 자기효능감이 낮고 학교 생활 적응력이 낮은 아동에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음악 활동을 포함한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기 효능감과 학교생활 적응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 치료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참고로 학습장애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력의 향상 발달을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장애아동으로써 자기효능감이 낮고 학교생활적응력이 현저히 낮은 아동에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음악 활동을 포함한 창조적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적응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질적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회기의 증가와 프로그램 종결후의 아동들의 행동 수행력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요구되어진다.

둘째, 창조적 음악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특수 교육 프로그램이 장애아동의 정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특성 면에도 효과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실험적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음악치료의 대표적 방법(행동주의적, 인본주의적, 분석적)에서보면 인지적인 발달의 과정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창조적 음악치료방법 안에서의 독립적인 창조성에

기인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현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심리학이론에서 자기실현 보다 창조성과 체험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이론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한 확산적 사고로 '지금 그리고 여기(now and here)'서 학문적 연구의 새로운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공창숙, 여상훈역 (2002). 음악치료. Hinrich Van Deest (1995), Heilen Mit Musik. 서울: 시유시.
- 구혜숙 (1994). 학교적응과 비 학문 자아개념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요한 등 (역)(1999). J. E. Ysseldyke 등. 원저. 교사를 위한 지침서 특수교육학 서설. 서울: 교육과학사.
- 김군자 (1998). 음악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김수룡 (2002). 자아개념 프로그램이 학습 부진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승국 등 (1997). 학습장애 아동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김유미 (2000). 유아음악교육의 두뇌생리학적 근거와 적용. 열린유아교육연구, 5(2), 45-70.
- 김유미 역 (2000). 두뇌 기반 교수. E. Jensen (1998c), Teaching with the brain in mind. 서울: 푸른세상.
- 김정권, 여광웅, 조인수 (1998). 특수아동의 교육. 심리진단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정권, 한현민 역(1999).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 Samuel A Kirk James J. Gallagher (1989).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지은 (2000). 학습 장애아 음악교육의 음악 치료 도입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환 (2000). 심리척도 핸드북(I), (II). 서울: 학지사.
- 안영복 (1985).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의 특성과 관계 변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관희 (2001). 비행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치료적 음악활동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지인 (1997).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금진, 이경미, 박현주 (역) (1997). Lisa Rappaport Morris & Linda Schulz 원저. 장애아동을 위한 창조적 놀이활동. 서울: 학지사.
- 이영애 (2002). 부적응 학생들의 정서 변화를 위한 음악의 치료적 접근: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희 (2001).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음악치료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승권 (1993). 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조난경 (1997). 초등학교 학습자의 상황불안과 학교 적응간의 관계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병철, 방금주 (역) (2001). Rudolf E. Radocy & J. David Boyle 원저. 음악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유선 (2002). 정신지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음악의 치료적 접근 방법. 대한 음악치료학회. 3(1), 19-20.
- 허순희 (역) (1995). June Tillman 원저. 놀이를 통한 음악학습. 서울: 학지사.
- Alvin, J. (1975). Music Therapy (Revised Paperback Edition). London: John Clare Book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ender, W., & Golden, L. (1988). Adaptive behavior of learning disabled and non-learning disabled children.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11(1), 55-61.
- Boxill, E. (1997). *The Miracle of Music Therapy*.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Bruscia, K. (1987). *Improvisational Models of Music Therapy*.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Bryan, T., & Bryan, J. (1986). *Understanding learning disabilities*(3rd ed.). Palo Alto, CA: Mayfield.
- Gross, E. F. (1957). *An empirical study of the concepts of cohesiveness and compatibility*. Unpublished honors thesis,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 Holland, J. C., & Rowland, J. H. (Eds.). (1989). *Handbook of psychooncology*. New York: Oxford Publishing.
- Kadushin, A. (1980). *Child Welfare Services*(3r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Kohler, W. (1929). *Gestalt psychology*. New York: Liveright.
- Lathom, W. (1983). *Role of music therapy in the education of handicapped children and youth*. Lawrence, 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 music therapy.
- Minskoff, E. (1980a). Teaching approach for developing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s in students with social perception deficits: Part 1.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3(3), 118-123.
- Minskoff, E. (1980b). Teaching approach for developing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s in students with social perception deficits: Part 2. Proxemic, vocalic, and artifactual clu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3(4), 203-208.
- Nordoff, P., & Robbins, C. (1971). *Therapy in Music for Handicapped Children*. London: Gollancz.
- Ostrander, S., Schroeder, L., & Ostrander, N. (1994). *Superlearning 2000*. NY: Delacorte Press.
- Perls, F. S. (1974). *Gestalt therapy verbatim*. New York: Bantam Books.
- Steiner, R. (1964). *The nature of Anthroposophy*. Blauvelt, NY: Rudolf Steiner Publications.
- Steiner, R. (1984). *The Essential Steiner: Basic Writings of Rudolf Steiner*.
- Suzanne, B. Hanser. (1999). *The New Music Therapist's Handbook*. (Edited and Introduced by Robert McDermott).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 Sylwester, R. (1995). *A celebration of neuron: An educator's guide to the human brain*. VA: ASCD.
- Vachon, M. L. (1986). *Models of group intervention*. In S. B. Day(Ed), *Cancer, stress, and death*(2nd ed., pp.203-213). New York: Plenum Medical Book Company.
- Vaughn, S. (1985). Why teach social skills to LD student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8, 139-143.
- Weinberg, N., Uken, J. S., Schmale, J., & Adamek, S. (1995). Therapeutic factors: Their presence in a computer-mediated support group. *Social Work for Groups*, 18(4), 57-69.

원고접수일 : 2003. 6.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3. 8. 20

게재결정일 : 2003. 9. 5

## Effects of Creative Music Therapy on the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orders

Hae-Sook Sim

Jeong-Mi Park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effects of Creative Music Therapy Program on the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orders.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were asked to experience of so-called 'character socialization' through impromptus, musical composition, musical performance and music appreciation. The study used the combination of a theoretical, literature research and an empirical, experimental research. Its procedure consisted of prior, experimental and post stages in sequence. Effects of creative music therapy were verified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program. The effects were measured using Self-Efficacy Test and School Life Adaptation Test. After the program,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questionnaire forms filled out by the experimental group and observers and related recorded tapes.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reative Music Therapy Program had effects on the self-efficacy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orders. Second, Creative Music Therapy Program had effects on the school life adaptation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orders. Finally, this study would be basic therapeutic information in scientific and systematic ways in regard to effects of Creative Music Therapy Program on such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orders as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adaptation.

*Key Words* : creative music therapy, children with learning disorders, self-efficacy, school life adaptation